

에디트 슈타인의 단일 존재로서의 몸철학과 생명형이상학을 통한 몸의 환원주의적 시각 비판^{**}

이은영^{***}

-
- | | |
|---|----------------------------------|
| 1. 들어가는 말 | 4. 에디트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과 생명형이상학 |
| 2. 몸에 대한 철학적 담론 :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5. 결론을 대신하며 |
| 3. 에디트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
-

【국문초록】 오늘날 생명윤리적 문제들은 왜 철학을 필요로 하는가? 라는 물음을 제기하며 본 글을 출발하였다. 근래의 생명공학은 복제와 유전공학과 관련된 논제에서 철학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학자들도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생명사상과 생명철학의 담론을 포함시켜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자들 스스로 현대과학과 문명의 발달에서 인간과 인간 사회에 제기하는 문제들을 고찰한다는 맥락에서 생명윤리의 문제들과 철학의 융합적 숙고는 더욱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인간에 대한 환원주의적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조망할 수 있는 생명형이상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생명윤리적 난제들의 해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생명형이상학의 의미는 인간의 존재를 다만 생물학적 지식에 근거해 이해하려는 근대의 맹목적이며 일면적인 생물학주의(biologism)를 넘어서 존재론적 사유 지평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찾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과 생명형이상학을 바탕으로 오늘날 현대사회의 한 시각인 환원주의적 몸 담론을 비판한다. 그리고 ‘영혼이 없는 심리학’ 내지는 ‘사유하지 않는 과학’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동시에 현대 생명과학에 의해 밝혀진 학적 결과와 지식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그 지식이 지니는 존재론적 의미와 생명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해명하는 철학과 생명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과 생명의 형이상학적 논의는 하나의 의미 있는 패러다임 일 것이다.

【색인어】 에디트 슈타인, 생명형이상학, 단일성, 단일 존재로서의 몸, 생명성, 몸의 복권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7567).

** 이 논문은 2014년 10월 10일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10월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으로 그 당시 발표장에서는 의되었던 사항을 참고하여 수정된 논문임을 밝힙니다. 특히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몸에 대한 철학적 담론의 의미를 밝히고 그 속에서 생명형이상학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인문학 연구자들과 생명과학 내지는 생명공학 연구자들 사이에 학제 간 대화

1. 들어가는 말 :

1. 1. 생명윤리는 왜 철학을 필요로 하는가?

오늘날 생명윤리적 문제들은 왜 철학을 필요로 하는가? 에 대한 물음을 제기해 본다. 이에 대하여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공동체주의와 공공성』에서 “우리가 복제와 유전공학의 윤리적 함축과 씨름하기 위해서는 현대에 사라져버린 질문들, 즉 자연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주어진 세계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태도에 대한 질문을 다룰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대 철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거의 신학적 질문에 가깝거나, 최소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영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공학이 지닌 새로운 힘은 이런 질문들을 피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복제와 유전공학과 관련된 논제에서 철학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학자들의 담론에서도 향후 생명윤리학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생명사상과 생명철학의 담론을 포함시켜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자들 스스로 현대과학과 문명의 발달에서 인간과 인간 사회에 제기하는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생명윤리의 문제들과 철학함에 대한 융합적 속고가 요청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¹⁾

이러한 강조는 결국 인간이 형이상학적 존재라는 사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이데거

(M. Heidegger)는 존재의 의미와 근원에 대하여 질문하고, 자신의 존재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실현하기 위해 근원적으로 노력하는 인간을 그 자체로 형이상학적 존재로 보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 존재(Homo Metaphysicus)인 것이며, 형이상학적 과제와 지평을 벗어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명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곧 존재의미를 묻는 과정에서 대답이 주어질 수 있으며, 그 존재의미에 따라서 정당하게 근거지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진화생물학은 생명에 대하여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의미 또는 생명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대하여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한다. 예컨대, 사회생물학(Sociobiology)이나 통섭(Consilience)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신을 생물학적 진화과정에서 착각으로 생겨난 환상에 비유하는 도킨스(R. Dawkins)의 설명이 전형적인 예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연과학적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 기원과 근원에 대한 설명 또는 영혼과 인격에 대한 해석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다. 따라서 필자는 인간에 대한 환원주의적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조망할 수 있는 생명형이상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생명윤리적 난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한에서 통합적인 인간을 강조하는 생명윤리 이론인 ‘인격주의 생명윤리’ 이론도 마찬가지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²⁾ 인격주의 생명윤리 이론을 강조하는 학자

의 토대 내지는 융합학문간 가교 역할의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자는 인문학과 생명과학 내지는 생명공학의 학문적 관련성이라는 문제야말로 우리 인문학자들이(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자들이) 도전할 수 있고 응당 도전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연구 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문학과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문제의식을 인문학의 경계 밖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고, 또한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전공자들에게는 ‘영혼이 없는 심리학’ 내지는 ‘사유하지 않는 과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와 그들이 인문학과 철학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지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서강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1) 최경석, 「의료에 관한 철학적 성찰」,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4, 12-13쪽.

2) 홍석영, 「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 모색」, 『국민윤리연구』 제 55호, 한국국민윤리학회 2004, 235-258쪽. ; 홍석영교수의 의

들은 무엇보다도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 인간 생명의 고귀함과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접근을 요청한다.³⁾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슈타인의 인간학과 이를 토대로 하는 생명형이상학을 바탕으로 오늘날 현대사회의 한 시각인 환원주의적 몸 담론을 비판한다. 그리고 ‘영혼이 없는 심리학’ 내지는 ‘사유하지 않는 과학’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동시에 현대 생명과학에 의해 밝혀진 학적 결과와 지식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그 지식이 지니는 존재론적 의미와 생명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해명하는 철학과 생명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과 생명의 형이상학적 논의는 하나의 의미 있는 패러다임 일 것이다.

1. 2. 아우슈비츠의 유산 : 에디트 슈타인

아우슈비츠에서 사라져 버린 사람들에게 대하여 1950년 네덜란드 관보(官報)는 모든 유대인의 리스트를 공표했다. 그 리스트 번호 34에 ‘번호 44074, 에디트 슈타인(Edith Stein), 1891년 10월 브레슬라우(Breslau)에서 출생, 1942년 8월 9일 에히트(Echt)에서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다.⁴⁾ 여성 철학자 슈타인은(Edith Stein, 1891-1942) 1942년 아우슈비츠(Auschwitz) 강제수용소에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철학은 오늘날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와 더불어 유대인 여성 ‘철학자로서’ 그 위치를 드러내

고 있다. 그럼에도 슈타인의 철학적 위치는 한나 아렌트(Hanna Arendt, 1906-1975)의 그것과 비교하여 낮은 인지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로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그녀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순교한 가톨릭 성인(聖人)으로서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슈타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주로 슈타인의 생애, 그리고 순교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상가들이 철학자로서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그녀의 사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⁵⁾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더불어, 필자는 슈타인의 인간학을 바탕으로 오늘날 현대사회의 한 시각인 환원주의적 몸 담론을 비판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유의미한 인간상을 고민하며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에 앞서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학을 왜 슈타인의 주요 사상이라 할 수 있는가? 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슈타인의 동료인 인가르텐(Roman Ingarden, 1893-1970)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슈타인을 연구할 때, 그녀의 박사논문 『감정이입의 문제』(Zum Problem der Einfühlung, Halle 1917 ; repr. München 1980)에서든 아니면 『개체와 공동체』(Individuum und Gemeinschaft, 1922)에서든 항상 의문이 나타난다 : 그것은 ‘인간

학 및 생명 과학 기술의 급속한 혹은 ‘후진 기어가 없는’ 발전 속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의학 및 생명과학 연구에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인간 존재’와 ‘인격 존재’의 일치성을 강조한다.

3) 김수정,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도덕적 단초」, 『인격주의 생명윤리』 제3권 1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3, 27-52쪽.

4) Amtliche Toderklärung von Edith Stein, Gravenhage, 22. 4. 1950(Edith-Stein-Archiv, Karmel Köln)

5) 슈타인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생애와 순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녀의 저서는 현재 *Edith Stein Gesamtausgabe(ESGA)*, Herder, Feiburg/Basel/Wien) 26권으로 재 간행 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Biographische Schriften(1권-4권) B. Philosophische Schriften : I-Frühe Phänomenologie(5권-8권) II-Phänomenologie und Ontologie(9권-12권) C. Schriften zu Anthropologie und Pädagogik(13권-16권) D. Schriften zu Mystik und Spiritualität : I-Phänomenologie und Mystik(17권-18권) II-Spiritualität und Meditation(19권-20권) E. Übersetzungen(21권-26권)

본성에 대한 물음, '인간 인격에 대한 물음'(die Frage nach der Natur des Menschen, der menschlichen Person)이다. 또한 그녀의 주저 『유한한 존재와 영원한 존재』를 읽는 사람은 그 책 대부분을 슈타인 특유의 방식으로(현상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본질', '인간 인격의 본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⁶⁾

슈타인도 자신의 주저 『유한한 존재와 영원한 존재』(Endliches und ewiges Sein -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것은(인간의 구조에 대한 문제) 큰 작업이다. 왜냐하면 이 작업은 낮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선 첫 번째 작업으로 후설의 강의에서 몇몇의 의미에 대해서 작업하고, 그리고 인식의 행위로서의 감정 이입의 행위를 연구했다.⁷⁾ 그리고 나서 모든 작업의 후반부에서 언제나 다시 나는 '인간의 구조'에 몰두했던 것이다."⁸⁾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슈타인은 주저 『인간의 구조』(Der Aufbau der menschlichen Person, Herder 1994)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격으로서 인간의 구조는 어떠한가? 인간이 인격적 존재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끊임없이 철학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장 인간 존엄성

이 보장되지 않았던 장소, 가장 인간적인 존재로 인정 받지 못한 그 지점인 아우슈비츠(Auschwitz) 수용소에서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존재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다. 필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끊임없이 제기되는 물음을 생각해 본다. 즉 인간을 물질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정신에 의미를 둘 것인가?, 또는 인간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물질이나 정신에서처럼 어느 한 쪽을 강조할 것인가? 에 대한 물음을 제시해 본다. 그리고 이 모든 물음은 결국 인간에 대한 담론이라 생각하며,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한 치열한 접점에서 필자는 인간의 몸 에 대한 철학적 담론에 주목하며, '마음과 몸의 단일 존재로서의 몸 철학'이 현대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생명윤리 내지는 생명형이상학과 연관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몸에 대한 철학적 담론 :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렇다면, 우리는 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다. 본 글은 몸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이념에 충실할 때, 기본적으로 21세기의 개인과 사회가 자유롭게 조화를 이룸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이 오늘날 이 시대가

6) Roman Ingarden, "Zu Edith Steins Analyse der Einfühlung und des Aufbau der menschlichen Person", in : *Denken im Dialog. Zur Philosophie Edith Steins.*, Hrsg. von Waltraud Herbstrith, Tübingen 1991, S. 72.

7) Edith Stein, *Selbstbildnis in Briefen, Erster Teil 1916-1933*, Freiburg / Basel / Wien 2. Aufl., 1998, S. 21.; Edith Stein, *Zum Problem der Einfühlung*, Hinführung von Prof. Dr. Johannes Baptist Lotz SJ, Halle 1917(Reprint, München 1980).

8) Edith Stein, *Aus dem einer jüdischen Familie. Das Leben Edith Steins ; Kindheit und Jugend*, Louvain/Freiburg 1985, S. 359. Edith Stein, *Der Aufbau der menschlichen Person*, Freiburg-Basel-Wien 1994, Einleitung der Herausgeber, S. 17.(이하 AP로 줄임)

요구하는 몸철학의 성격과(정신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몸의 중심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지나치게 몸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하는 몸의 숭배와 같은 현상을 반성하는 단일성의 몸철학) 부합함을 밝히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명 다양한 몸의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오늘날 여전히 '몸'은 긍정적 측면과 또한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담론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⁹⁾ 다양한 몸에 대한 철학적 담론에서 서양 철학적 전통 전반에 대한 반성적 재검토라는 점을 수용하며 필자는 특히 근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실체가 몸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이끌어 내는 주요 계기로 지정한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입장을 통하여 몸에 대한 담론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에 대하여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근대철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데카르트는 오늘날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¹⁰⁾ 이는 데카르트 철학의 양면성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중세철학, 그 중에서도 스콜라철학으로 되돌아가는 사변적인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슈타인은 무엇보다도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들에게서는 일종의 데카르트 학파 같은 교의가 존재한다..."(...daß gewisse cartesianische Lehren sich schon bei den Vertretern der scholastischen Philosophie finden...)고 강조함으로써 데카르트 철학과 중세 스콜라철학의 유

사성을 논하고 있다.¹¹⁾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대 서양 의학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는 생의학적(biomedical) 모델의 기반을 이룸으로써 실천적인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루어 냈다. 이것은 근대 물리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의학의 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데카르트의 양면성은 데카르트 이후 근대철학과 현대철학을 대립적인 방향으로 전개시켰던 측면으로 한편으로는 데카르트 철학이 독일 관념론의 근원지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체를 본격적으로 인간으로 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²⁾

데카르트는 존재하는데 다른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실체(Substanz)로 이해하고, 물질과 정신의 존재론적 기반을 신(Gott)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한실체라 부른다. 이것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론적 실체를 유한실체로 규정하고 이 유한실체의 존재론적 기반으로서 무한실체인 하느님을 인정한다는 주장이다.¹³⁾ 유한한 실체들은 존재하기 위해 신을 필요로 하며 그 밖의 어떤 것들의 작용도 필요하지는 않다. 데카르트는 관계없이 나란히 서 있으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존재 영역을 구성하는 두 가지 실체를 인정하였다. 그런 한에서 데카르트는 몸과 영혼의 이원론을 새롭게 수립했으며, 부분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전수된 플라톤의 전통적 노선에 서 있다.¹⁴⁾

이러한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실체인 정신과 연장적 실체인 몸의 이원론적 구분은 서구사상에서 몸과 정신 혹은 사유와 물질의 관계에 대한 인식론적 과제를 남

9) 필자가 생각하는 긍정적 측면은 지나친 정신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몸의 중심성을 인정하는 면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 측면은 몸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이제 어느 곳이나 몸을 숭배하거나 우선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진정한 생명성에 대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10) 이은영, 「에디트 슈타인은 데카르트의 주체철학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이원론적 실체관과 생명론을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 60집, 한국현상학회 2014, 95-123쪽.

11) Edith Stein, *Übersetzungen V: Alexandre Koyré, Descartes und die Scholastik*, mit Einführung, Bearbeitung und Anmerkungen von Hanna-Barbara Gerl, Herder 2005, S. 52-53. (이하 *Übersetzungen V* 로 줄임)

12) 강영안, 『주체는 죽었는가』, 문예출판사 1996, 76-78쪽.

13) Rene Descartes, *Meditationes de prima philosophia* 『성찰』,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7, 56~79쪽. (이하 『성찰』 로 줄임)

14) *Übersetzungen V*, S. 53.

졌다. 그는 육체를 연장(延長)으로 파악하고 사유실체의 예속물로 전락시킴으로써 서구철학사에 순수이성주의 전통을 새롭게 수립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신과 물질, 사유와 연장을 엄격히 분리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나는 하나의 실체이고, 그 본질 혹은 본성은 오직 생각하는 것이며, 존재하기 위해 어떤 장소도 필요하지 않으며 어떤 물질적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신은 육체와 구분되는 것이며, 심지어 정신은 육체보다 더 쉽게 인식되고 설명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신은 스스로 중단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¹⁵⁾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명제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정신은 전적으로 육체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가 아닌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신은 육체보다 인식하기 쉽다는 것인데, 그것은 정신이 지적(知的) 노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감각과 연관되는 사물들의 진리성은 사유하는 내가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코기토의 본질은 정신, 영혼, 지성, 또는 이성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신의 인식이 논리적으로 육체의 인식보다 앞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한 후 육체의 존재는 회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데카르트의 cogito ergo sum은 res cogitans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본유관념을 갖고 있

다는 확신인 것이며, 또한 확실한 관념을 통해 정신이 스스로 선형적으로 이해 가능한 본질을 갖고 있다는 설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정신의 실재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그가 정신의 선형적 본질에 근거해서 그것의 존재 가능성을 도출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은 『방법서설』의 제 6성찰에서 이어 진다;

“한편으로 내가 오직 사유하는 것이고 연장된 것이 아닌 한에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물체가 오직 연장된 것이고 사유하는 것이 아닌 한에서 물체에 대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으므로 나는 나의 육체와는 실제로 다르고 육체 없이도 현존할 수 있다.”¹⁶⁾

이에 대하여 그녀는 “(...)어떤 권리를 갖고 절대적인 존재를 지각하는 그리고 사고하는 것을 주체의 것으로 돌리는가?”라고 밝히면서,¹⁷⁾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내가 빛의 자극을 주시하고 내가 밖에서 하나의 호광등이 타오른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빛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며, 나로 하여금 쳐다보게 한다, 나의 눈이 그것을 보기 전 그 호광등은 거기에 있었다... 또한 내가 몸을 돌리거나 내가 멀리 떨어지면 나는 그만큼 그것을 더 이상 지각할

15) Descartes(ed. André Robinet), *Discours de la Méthode*, Librairie Larousse, 1972, 66. ; 홍경실,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실체관에 대한 베르그손의 비판과 극복」, 『철학』 제 80집, 한국철학회 2004, 220쪽 재인용.

16) 『성찰』, 109쪽.

17) Edith Stein, *Potenz und Akt-Studien zu Philosophie des Seins*, Herder 1998, S. 395.

수 없는 것이다.”¹⁸⁾

후대의 비판을 예견치 못했던 데카르트의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은 『성찰』의 제 6성찰을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논해 진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정신과 육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육체는 본질적으로 항상 분해될 수 있으나 정신은 완전히 분해될 수 없다. 내가 내 정신을, 즉 오직 생각하는 존재인 한에서의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도 구별할 수 없고 다만 나 자신을 오직 하나의 전체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정신 전체가 육체 전체와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팔이나 팔 또는 다른 어떤 부분이 육체에서 분리되어도 정신으로부터 어떤 것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이 한가지만으로도 정신은 육체와 완전히 다른 것임이 드러난다.”

분명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그의 철학적 한계로 지적된다.¹⁹⁾ 정신과 신체를 구분해서 별개의 독립존재로 인식하는 그의 이원론은 자연과 타자를 자기화하려는 철학적 원리를 세우고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주 나아가서 자연의 착취자로서 인식하게 된다.²⁰⁾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비판하는 하나의 주류가 있는데, 바로 마음의 본성에 대한 경험 과학적 탐구 성과들을 주장하는 인지 과학적 연구이다. 이들이 비판하는 쟁점은 데카르트의 몸과 마음의 이원론이 마음의 독립적인 의미를 거부함으로써 몸에 대한 관심 내지는 몸을 간접적으로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마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마음의 독립적 의미를 거부함으로써 몸에 대한 관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들의 출발점은 마음에 대한 관심이며, 하지만 마음의 독립적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시도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넣는데 하나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철학사를 통해 ‘몸의 중심성’이라는 논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정신주의적 주류에 의하여 몸이 무시되거나 위험한 것으로 억압된 상황을 비판하며 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18) HU., S. 68.

19) 이에 대하여 김성환 교수는, 데카르트는 인간 정념이 몸이 하는 일을 정신이 원하게 만드는 것이며, 예컨대 두려움의 정념은 몸이 도망치는 것을 정신이 원하게 만들고 용기의 정념은 몸이 맞서 싸우는 것을 정신이 원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정신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몸이 동물정기와 술방울 샘의 움직임으로 정념을 낳아 정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몸과 정신의 상호 작용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환, 「데카르트들: 생명론에 대한 20세기 도전과 몇 가지 전망」, 『근대철학』 제 3권 1호, 서양근대철학회 2008, 54-55쪽. 하지만 이 문제는 데카르트가 남긴 철학적 쟁점으로 본 글의 주요 주제에서 벗어남으로 그 상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반면에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그의 철학적 한계로 지적하고 있는 글로는, C. A. 반 퍼슨 지음, 손봉호, 강영안 옮김, 『몸, 영혼, 정신』, 서광사, 1985. Mark Johnson 지음, 노양진 옮김, 『마음속의 몸』, 철학과현실사 2000. 노양진, 「몸의 철학적 담론: 몸과 마음의 이원론을 넘어서」, 『철학연구』 제 27집, 2004. 고려대 철학연구소, 류의근, 「몸의 정치」, 『철학연구』 제 26집, 대한철학회 2013, 53-78쪽. 신승환, 「생명형이상학의 해석학적 지평」, 『가톨릭철학』 제 17호, 한국가톨릭철학회 2011. 구인회, 「근대 실체 형이상학과 그 비판의 지평에서 살펴 본 죽음」, 『생명윤리』 제 13권 제 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1-13쪽 참조. 이은영, 「에디트 슈타인과 몸, 생명 그리고 종교」, 『철학연구』 제 123집, 대한철학회 2012.08. 「철학적인간학에서 존재와 본질의 문제: 에디트 슈타인의 존재론적 인간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 117집, 대한철학회 2011.02. 등이 있다. 특히 구인회 교수는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것은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육체의 종말이 죽음이며,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킴으로써 인간의 통합성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구인회, 「근대 실체 형이상학과 그 비판의 지평에서 살펴 본 죽음」, 『생명윤리』 제 13권 제 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13쪽.

20) 류의근, 「몸의 정치」, 『철학연구』 제 26집, 대한철학회 2013, 5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실체관에 서 비롯된 심신이원론(mind-body dualism)과 기계론적 생명관이 현대 생의학적(biomedical) 모델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전체를 최소 단위로 분할하여 분석해 가는 환원주의(Reductionism) 역시 기계적 생명관과 함께 서양 의학의 오늘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²¹⁾ 예컨대, 데카르트는 우주가 역학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거대한 기계이듯이 생물 역시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정밀 기계로 보았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 의학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인간의 몸을 물리학적으로 보는 의물리학파(Biomedical Physics)를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다. 또한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생명관은 동시대의 하비(W. Harvey)에게 영향을 주어 인체의 혈관계를 기계 구조로 파악하고 심장은 펌프, 혈관은 폐쇄회로, 혈관계는 폐쇄혈관계로 파악하게 하였다.²²⁾ 이러한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생명관은 몸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오늘날 지나친 몸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며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육체가 난무함으로써 몸에 대한 자기 비하적 관념 변화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가시적인 몸을 숭배함으로써 육체가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몸과 마음의 분리 현상에서 오는 정신의 탈육화는 서구의 이원론적 전통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의 성숙,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문화의 팽배로부터 가능해졌다. 페더스톤(Featherstone)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몸은 물질적 교환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맥락과 일치한다. 그에 의하면, “육체가 쾌락과 함께 하나의 표현수단으로 강조되는 소비문화 속에서 육체 유지(body maintenance) 산업의 급성장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육체 유지 산업의 성장은 육체의 물질적 교환가치를 상승시키나 인간의 몸이 지니는 존엄성은 오히려 격감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²³⁾ 예컨대, 남성의 경우 격렬한 운동에 참여하여 근육질의 몸을 가지려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상황은 뉴욕타임스가 2011년 10월 ‘한국의 성형 광풍, 동양의 미(美)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기사로 한국인의 성형실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래 한국인의 성형 집착은 국제사회에서 빈축을 받고 있다.²⁴⁾ 얼췌이 하나의 신드롬으로 꼽힐 만큼 우리 사회는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

21) 반덕진, 「데카르트의 심신론이 의학에 미친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제10권 1호, 한국보건행정학회 2000, 32-33쪽.

22) 하비는 피의 순환이 대우주의 원운동과 비슷한 소우주의 운동이고 이 순환에 생명의 유지라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이며, 또한 피가 생명원리를 지닌 영혼자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생기론자이다. 데카르트는 하비의 생리학에서 목적론과 생기론의 요소를 철저히 배격한다. 김성환, 「데카르트들: 생명론에 대한 20세기의 도전과 몇 가지 전망」, 『근대철학』 제 3권 1호, 서양근대철학회 2008, 50쪽.

23) 마이크 페더스톤, 「소비문화 속의 육체」, 『문화과학』 4호, 문화과학사 1993, 35-63쪽.

24)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에 따르면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은 성형수술을 한다. 인구 대비 성형 비율이 세계 1위다. 한국의 성형시장은 45억 달러로 세계 성형시장(200억 달러)의 근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처럼 너도나도 성형에 매달리다 보니 비극적인 사고가 줄을 잇는다. 최근 22세 여대생이 또 목숨을 잃었다. 이 여대생은 지난달 17일 부산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세우고 턱을 깎는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후 뇌사 상태에 빠져 9일 만에 숨졌다. 지난 6월에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수술 중 역시 의식불명 상태가 돼 한 달 만에 사망했다. 3월에도 22세 여대생이 청주의 성형외과에서 눈·코 성형을 위해 마취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나이든 초등학교 여교사가 방학기간을 이용해 얼굴 주름살 제거수술을 받다 사고로 숨지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그런데 그 속사정이 기가 찬다.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할머니 같다고 놀리는 바람에 수술대에 오른다는 것이다. 인형 같은 아이들 가슴에 열광하다 보니 어린 아이들까지 외모 지상주의에 몰려들어가고 있다. (성형 공화국, 수술해야 한다), 이데일리 2013.11.04일자 참조.

에서 청소년들에게 몸과 외모 가꾸기는 사회적 성공을 향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²⁵⁾ 이것은 오히려 몸은 철학적 사유를 가로막는 장애물 혹은 대상이라는 정신주의 전통을 비판하였던 그 출발점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부분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슈타인의 단일-존재(Einheit-Sein)로서의 몸철학과 이를 토대로 하는 생명형이상학의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몸에서 물질적 측면을 정신적인 면과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몸의 복권을 이루어 냈다는 점이다(몸의 철학적 담론에서 정신을 강조하는 측면을 비판함으로써 몸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각시키는 긍정적 측면).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몸의 복권을 통하여 등한시될 수 있는 영혼과 정신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물리적 사태의 총체로 이해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성에 대한 생명 없는 것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몸의 철학적 담론에서 지나친 몸의 숭배를 비판하며 몸과 정신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측면).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은 한편으로는 몸을 강조함으로써 몸의 복권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서 오는 한계를 생명형이상학적 측면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인 것이다. 그런 한에서 슈타인이 강조하는 ‘몸 철학’이란 마음과 몸의 상관관계를 통한 ‘단일성(Einheit)으로서의 몸 철학’이며 몸이 우선하고 마음이 그 다음이라는 우선순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을 어

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3. 에디트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요 쟁점을 통해 등장한 20세기 초반의 대표적 철학자 중 한 사람이 슈타인이다. 슈타인은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 이 세계를 물질적 사물,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으로 구분한다. 이 단계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지니고 있지만 상호간의 연관성 속에서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인간의 구조』(*Der Aufbau der menschlichen Person*)와 『철학입문』(*Einführung in die Philosophie*)에서 첫 번째로 물질적 사물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공간 속에서 일정한 크기와 형태를 지니는 점을 그 특성으로 제시한다.²⁶⁾ 이러한 특성은 사물의 불가입성(Undurchdringlichkeit)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불가입성은 사물이 갖고 있는 물질성(Materialität)에서 기인된다는 것이다.(EP,42)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 사물로서의 특성이 인간에게도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 신체성(Körperlichkeit)으로 볼 때, 하나의 물질적 사물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인간은 물질적 사물에서처럼 일정한 크기와 형태를 지니고 있다. 물질적 사물로서의 신체는(Der Körper als materielles Ding) 작은 범위의 형상을 갖고 있는 연장의 공간사물이며, 존재하는 모든 순간마다 순수한 세계 공간 내에 하나의 장소를

25) 김옥순, 「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조사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 20권 1호, 한국여성체육학회 2006, 131쪽.

26) Edith Stein,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e*, Nachwort von Hanna-Barbara Gerl, Freiburg/Basel/Wien 1991, S. 37. (이하 EP로 줄임)

취하고 있고, 모든 다른 공간사물로부터 결정적인 거리를 취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물로서의 신체는 자신의 모든 연장에 따르는 공간적인 형태가 부여 되어 있는 것이다.”²⁷⁾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는 하나의 물질적 사물에 불과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물질적 사물이 조각낼 수 있고 재구성할 수 있는데 비해 신체는 조각낼 수 없고 재구성 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⁸⁾ 둘째, 물질적 사물이 직립할 수 없고, 무엇인가를 걸칠 수 없다는 것인데 반하여, 인간의 형태는 직립이며, 별거벗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물질적 사물은 변화가 없는데 반해서 인간의 신체(물질적 사물로서의 신체)는 형태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예컨대 물질적 사물인 책상은 1년 후나 10년 후에도 그 형태는 항상 그대로인 반면에, 인간의 신체는 어린 아이의 형태에서 청소년의 형태로 그리고 10년 후에는 어른의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신체는 지체(Gliederung)들과 기관(Organ)을 갖고 있다. 이들 지체들과 기관들은 서로 다른 물질적 요소들을 갖고

있으며 자기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며 신체의 운동과 변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물질적 사물은 어떤 것과 외부적으로 부딪힐 때 소리를 내고, 그 사물이 혼자 있을 때 그것은 결코 소리를 내지 못하는 반면에, 인간의 신체는 그 내부로부터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다. 예컨대 말을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울 때나 웃을 때가 그 예에 해당된다.”²⁹⁾

이와 같이 인간의 신체는 한편으로는 물질적 사물과 같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 사물을 넘어서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극복하는 슈타인의 사상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연장이 물질적 사물의 본질적 특성이며, 그런 한에서 생명적인 존재는 연장을 지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장을 본질상 배제한다”고³⁰⁾ 주장하기 때문이다.

슈타인은 물질적 사물을 넘어서는 지점을 ‘생명적인 것’으로 지정하고 식물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으로 나누어 다루어 나간다. 우선 식물적인 것을 살펴보면, 살아있는 유기체는 자신의 형태를 내면으로부터 형성한다. 이 점이 살아있는 것의 고유한 존재방식이며, 슈타인은 이것을 생명의 원리이며, 생명혼(Lebensseele)이라 표현한다.³¹⁾ 이때 생명혼 속에는 모든 지체와 기관이 전체를 위해서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이 과업이란

27) AP, S. 56.

28) 이에 대하여 데카르트는 “...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정신과 신체 사이에 큰 차이이다. 육체는 항상 분해될 수 있으나 정신은 완전히 분해될 수 없다....정신 전체가 육체 전체와 결합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발이나 팔 또는 다른 어떤 부분이 육체에서 분리되어도 정신으로부터 어떤 것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결국 정신은 육체와 완전히 다른 것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반덕진, 「데카르트의 심신론이 의학에 미친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제 10권 1호, 2000, 31-56쪽 참조.)

29) AP, S. 60.

30) Edmund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Zweites Buch : Phänomenologische Untersuchungen zur Konstitution*, Hrsg. von Marly Biemel, Haag, Martius Nijhoff 1952, S. 28.

31) AP, S. 61.

유기체를 실현해 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생명혼 (Lebenseele)이 인간에게도 있어, 인간의 물질적 사물로서의 신체를 유기물이 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속에 이러한 생명혼이 없다면, 인간은 단순히 하나의 물질적 사물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 속에 생명혼이 없다면 인간은 단순히 하나의 물질적 사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유기물은 ‘내면으로부터-자기를-형성하는 그러한 살아 있는’(das lebendige von sich-von innen-her Gestalten) 작용 속에 있다는 것이다.”(AP,63)

우리가 식물혼(Pflanzenseele, anima vegetativ)에서 생명원리와 형태원리를 볼 수 있었다면, 동물혼(Tierseele, anima sensitiva)은 감각적으로 밖으로 향해서 그리고 안으로 향해서 열려져 있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반응하고 내부로부터의 운동과 충동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동물혼은 동물의 몸과 함께 한다. 그것은 몸을 형성하고, 살게 하며, 그 몸속에 산다. 그리하여 혼(Seele)은 동물의 몸을 움직이게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몸속에서 자기를 드러낸다, 즉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표현할 뿐 아니라 내적인 상황인 기쁨과 슬픔, 분노와 공포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물혼이 단지 식물의 형상에 불과했다면, 동물의 몸과 동물혼은 서로 구별되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³²⁾ 슈타인은 이러한 동물적인 것이 인간 속에도 들어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인간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과 내부로부터 오는 충동에 감각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과 충동에 반응하여, 움직이고, 행위 한다.³³⁾ 감각(Empfindung)은 우선 감각적인 감정(sinnliche Gefühl)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쾌감 또는 불쾌감을 갖는다. 그리고 좋다 또는 싫다의 감정을 느낀다. 또한 인간은 어떤 것에 대한 본능적 평가 능력을 갖고 있어, 이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음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이는 그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는 그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동물에 있어서처럼 그렇게 예리하지도 않고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 본 현상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인간과 동물이 공통적으로 슬픔과 기쁨,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는 사실이다.”³⁴⁾

그렇다면,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가? 이다. 동물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향해서 나갈 수 없고, 또한 사물 속으로도 들어갈 수 없지만 인간은 자기 혼의 주인이다. 인간은 그 문을(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 스스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고, 사물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나와 다른 하나의 나(여기에서 하나의 ‘너’라고 표현한다면 하나의 ‘나’ 안으로 다른 하나의 ‘나’가 들어온 경우를

32) AP, S. 71.

33) AP, S. 101.

34) AP, S. 102.

의미한다)가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경우, 이것은 '문 (하나의 나가 다른 하나의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 앞에서의 만남'(eine Begegnung vor den Toren)일 수 있고 또는 '문 안에서의 만남'(eine Begegnung im Innen)일 수 있다. 이 만남이 문 안에서의 만남 일 때, 그 때 다른 하나의 '나'는 하나의 '너'가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시선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집주인이 깨어있는 상태로 있는 그러한 나(Ein selbstherrliches, waches Ich)는(다른 하나의 '나'를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자신과는 다른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는 그러한 나는) 집 안에서(내 안에서) 나를 내다보게 한다. 슈타인은 이러한 '나의 특성으로 '자유'와 '정신'을 지정하며, 자유와 정신을 특성으로 하는 '나'를 자유로운 정신적인 인격이라 명명한다. 즉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유로운 그리고 정신적인 존재(ein freies und geistiges Wesen)라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인격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인간을 모든 자연존재(물질적 사물, 식물, 동물)로부터 구별시킬 수 있는 것이다.³⁵⁾ 인간은 인격이며, 이 자유로운, 정신적인 존재로서 인격은 '육체적-생명적-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존재'이며 이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체'(Einheit)로 통합되어 있음을³⁶⁾ 슈타인은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녀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에서 오로지 물리적 층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생명적-정신적인 측면이 통합된 단일-존재로서의 인간존재'를 의미함으로써 인간을 하나의 물질적 사물로서 취급하지 않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하여 슈타인은 물질적인 몸(Körper)과 생명이 있는 몸(Leib)을 구별하며, 일반적으로 후자

(Leib)를 '몸'(Body)로 표현한다. 그녀에 의하면, 물질적 몸과 그 물질적 몸의 개별적인 부분들의 움직임은 일정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감각을 통하여 소리와 소음이라는 감각적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물질적 몸이 무엇인가를 물질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를 감각적으로 지각할 때 단순히 물질적 몸 이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와 소음을 구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슈타인의 주장은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여성과 어린이조차 처참하게 멸시해 버리는 경우에서처럼 인간 존재의 존엄성이 부여되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 인간 존재가 하나의 사물로서 취급될 수 없다는 슈타인의 원리에 근원을 두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³⁷⁾

바로 이 지점이 한편으로는 정신주의적 시각에 의해 무시되거나 간과되었던 몸의 복권이라는 새로운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몸의 복권을 통하여 등한시될 수 있는 영혼과 정신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물리적 사태의 총체로 이해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성에 대한 생명 없는 것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은 한편으로는 몸을 강조함으로써 정신주의적 전통에서 몸의 복권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발생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인 것이다.

35) AP, S. 106. ; 슈타인이 제시하는 인간의 특성을 '정신', '자유', '당위를 통하여 언급한 논문으로 이은영, 「에디트 슈타인의 인간관」, 『가톨릭철학』, 제 8호, 2006 참조.

36) Edith Stein, *Endliches und ewiges Sein, -Versuch eines Aufstiegs zum Sinn des Seins-* Herder 3. Aufl., 1986, S. 336.

37) AP, 33-37. ; Marian Maskulak, *Edith Stein and the Body-Soul-Spirit at the Center of Holistic Formation*, Peter Lang 2007, p. 61.

4. 에디트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과 생명형이상학

그렇다면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생명형이상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요소인가? 이다. 슈타인은 무엇보다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던 ‘심리학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생명형이상학적 이론을 출발시킨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모든 정신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단순한 물질로 환원시켜버리거나 또는 표상과 충동을 중심으로 기계론적 과정으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학은 자연과학이 되고, 사회와 문화 현상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 역시 자연법칙에 따르는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하기에 이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학의 시도는 종교적, 신학적 사고들로부터 전적으로 심리학을 분리하려는 ‘영혼이 없는 심리학’(Psychologie ohne Seele)³⁸⁾을 산출하였다. 영혼의 본성과 영혼의 능력 모두 신화적 개념들에 이해서 명시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결국에는 영혼의 자각과 활동이 단순한 감각들의 합성으로 설명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고, 철저히 무시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이성의 힘, 감정의 힘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의 힘과 같은 모든 힘들을 영혼으로부터 서서히

배출시켜 없애 버림으로써, 19세기의 과학적 심리학은 원리와 원칙들을 제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³⁹⁾

마찬가지로 생명의 형이상학을 주장하는 이들도 오늘날 생명과학 시대에 인간의 총체성을 특징짓는 생명마저 과학의 대상으로 주어짐으로써 철학의 궁극적 기반인 인간 생명의 근원적 의미가 매몰되고 상실되고 있음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또한 정신과 영혼, 그리고 생명까지 자연 인식에 있어 죽은 질료로, 물리적 사태의 총체로만 이해함으로써 생명을 생명 없는 것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생명체를 유전자의 층위에 제한시켜 해명하려는 현대 생명과학이나 여타 과학이 생명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에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생명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거나 생명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에는 그 타당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생명 윤리의 문제나 생명의 조작 내지 소유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총체성의 파괴를 의미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특히 생명의 형이상학을 강조하는 이들에 의하면, 인간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료적 존재자, 생명과 정신의 3단계를 단일하게 논구해야 함을 주장한다. 인간은 질료적 존재에 정신이 덧붙여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계적, 체계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단계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되는 역동적 어우러짐의 거울놀이가 바로 생명의 본질임을 주장한다.⁴⁰⁾ 따라서 생명의 형이상학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성’을⁴¹⁾ 밝히며 동시에 생명철학이 지니는 생성의 기

38) Edith Stein, *Welt und Person*, Herder 1962, S. 63-65. Edith Stein, *Aus dem Leben einer jüdischen Familie*, Louvain / Freiburg, 1985, S. 166.

39) Kurt Wuchterl, *Bausteine zu ein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des 20. Jahrhunderts, Von Husserl zu Heidegger*, Bern/Stuttgart/Wien, 1995, S. 17-18.

40) 신승환, 「생명해석학과 철학함」, 『존재론 연구』 제 5집, 한국하이데거학회 2000, 253쪽.

능을 우리의 철학적 지평과 관심사에서 살리는 길이 새로운 생성의 철학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통해 슈타인의 이론에서 생명 형이상학적 요인들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⁴²⁾ 첫째, 생명은 과학의 대상으로 주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영혼 그리고 생명을 물리적 사태의 총체로 이해함으로써 생명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는 '사유하지 않는 과학'에 대한 생명 형이상학의 주장과 슈타인이 '영혼이 없는 심리학'을⁴³⁾ 비판하는 지점에서 인간은 과학의 대상만으로는 주어질 수 없다는 생명형이상학적 요소를 제시한다. 둘째, 인간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료적 존재자, 생명과 정신의 3단계를 단일하게 논구해야 하며, 따라서 이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되는 역동적인 관계임을 주장하는 생명 형이상학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슈타인이 명시하는 단일 존재로서의 몸철학도 '육체적-생명적-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존재'이며 이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체'(Einheit)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명형이상학적 요소를 제시한다. 그녀의 인간 존재는 물리적 영역,

감각적 영역, 그리고 인간적 영역인 이들 영역 모두가 몸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호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슈타인의 인간 존재는 과정을 중시하는 점과 발전적 측면을 강조하는 역동적인 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형이상학을 강조하는 측면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⁴⁴⁾ 셋째, 생명 형이상학에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서로 끊어서는 안 될 고리를 맺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유와 논리에서 물질, 생물 그리고 인간은 서로 간에 어떠한 선도 그을 수 없는 상호간 연속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예컨대,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거나 또는 생물이 광물보다 귀하다는 사고는 아무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형이상학적 본질과 그 의미도 포괄적 형이상학의 새로운 비전의 테두리 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생태 중심으로, 그리고 의인적 세계관에서 생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한다.⁴⁵⁾ 마찬가지로 슈타인의 단일 존재로서의 몸철학에서도 이 세계는 물질적 사물, 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나누어진 단계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지만, 서로서로의

41) 생명성이란 질료와 생명 그리고 정신을 총체적으로 논하며, 그 안에서 생성과 차이를 수용하고 생명과 존재 자체의 근원이 내재적으로 함축된 존재의 의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체로서 인간이 지닌 총체성과 근원적 존재의 의미 자체를 모색함으로써 생명의 감각적 측면과 초월적 측면 그리고 영성적 측면의 생성의 기능을 '내재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역동적 생명 형이상학이라 할 수 있다.

42) 에디트 슈타인의 단일 존재로서의 몸철학과 생명형이상학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은영, 「에디트 슈타인의 단일 존재로서의 몸철학과 생명형이상학」, 『인간연구』 제 24호, 인간학연구소 2013, 151-185쪽 참조.

43) 임흥빈교수는 현대의 기술공학과 접목된 자연과학이 생명에 대한 인식 지평을 확대한 점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생명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생명철학은 생명체의 유기체적 조직에서부터 정신, 문화, 의식적 형질들이 발현될 수 있는가를 주목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내면성의 차원, 초월의 영역이 생명의 물리적 성질이나 물질교환의 역학관계를 넘어서 출현할 수 있는가가 쟁점임을 주장한다. 임흥빈, 「생명의 형이상학은 가능한가?」 『과학사상』 제 36집, 범양사 2001, 162-164쪽.

44) 구인회교수는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데카르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하나의 근본문제가 되었으며, 육체와 영혼 문제의 새로운 자극을 준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데카르트에게 살아있는 육체는 태엽이 감겨져 있는 시계와 같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는 기계의 종말일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자연적인 죽음의 개념을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통합성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구인회, 「근대 실체 형이상학과 그 비판의 지평에서 살피본 죽음」 『생명윤리』 제 13권 제 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2-3쪽 참조.

45) 박이문, 「생명의 형이상학」 『철학연구』 제 50집, 대한철학회 1993. 참조.

연관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⁴⁶⁾ 인간은 물질적 사물, 식물, 동물로부터는 자유로운 그리고 정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 구별되기도 하지만, 물질적 사물, 식물, 동물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자신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의 형이상학을 강조하는 측면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올바른 생명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편으로 질료와 생명 그리고 정신을 총체적으로 논하며, 그 안에서 생성과 차이를 수용하고 생명과 존재 자체의 근원이 내재적으로 함축된 생명성의 문제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체로서 인간이 지닌 총체성과 근원적 존재의 의미 자체를 모색함으로써 생명의 감각적 측면과 초월적 측면 그리고 영성적 측면의 생성의 기능을 '내재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생명형이상학의 모색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과 생명형이상학적 토대는 하나의 의미 있는 패러다임인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며

오늘날 다양한 몸의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몸'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담론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에디트 슈타인의 단일 존재로서의 몸철학이 몸의 담론에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일 수 있는지를 논하였다. 그 결과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몸에서 물질적 측면을 정신적인 면과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몸의 복권을 이루어 냈다는 점이다. 이 측면은 서구 지성사에서 지나치게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하는 몸의 평가절하에 대하여 몸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긍정적 측면과 그 의미를 함

께 한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몸의 복권을 통하여 등한시될 수 있는 영혼과 정신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물리적 사태의 총체로 이해하는 데서 발생될 수 있는 생명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측면은 오늘날 지나친 몸의 숭배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몸의 부정적 측면으로 지정하고 본 글에서 육체 유지 산업의 급성장이나 얼짱, 성형공화국과 같은 상황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몸의 철학적 담론에서 부정적 측면을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과 이를 토대로 하는 생명형이상학을 통하여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은 한편으로는 몸을 강조함으로써 몸의 복권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한계를 생명형이상학적 측면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단일성의 토대 위에 세워진 생명성에 대한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작업이 어떠한 인간학적,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영혼이 없는 심리학' 내지는 '사유하지 않는 과학'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동시에 올바른 인간 이해의 철학과 생명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올바른 인간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현대 생명과학에 의해 밝혀진 학적 결과와 지식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그 지식이 지니는 존재론적 의미와 생명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해명하는 인간이해의 형이상학, 다시 말해서 단일성을 토대로 하는 인간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하는 생명형이상학의 모색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과 생명의 형이상학적 토대는 하나의 의미 있는 패러다임인 것이다.

46) AP, S. 63.

[Abstract]

Reductionist View of the Body Criticism through Edith Stein's Body Philosophy as a singular Being and Metaphysics of Life

Lee, Eun-Young^{*}

Today, ethical issues are why the philosophy of life do you need? The question : this letter, questioning the set off. Modern biotech is a philosopher's role in cloning and genetic engineering and other related topics and to emphasize. And of course, also a moral philosopher on the other hand the discussion of traditional life of thought and life philosophy, shall be included on the other hand, philosophers themselves of modern science and civilization. In human beings and human development issues posed by the society that examining the bioethical issues in the context of philosophy and convergence becomes even more careful in request. In this context, a writer is a reductionist frontier and on human error, integrated and holistic perspective and overcome human life can take a view to the metaphysical. Based on the theory finds it can find a possible resolution of ethical questions when life. Metaphysics is the meaning of human life, because Modern's blind and trying to understand biological knowledge based on the existence of biological front page attention beyond the (Biologism). Because they can be grown in the process that presents a existential reason for the horizon. To this end, the writer Stein of the existence - a single body as a life philosophy and metaphysics of today's modern society on the basis of a reductionist argument about body, the same time criticizing. And 'The science that does not appropriate' 'Psychology who has no soul' or overcoming of one aspect of modern life sciences at the same time, identified by the academic results and knowledge. While not neglecting the existential implications of a knowledge, and the meaning of life as a whole, and attempts to build up a science, philosophy and explaining life. Stein being presented in the process of a single body as the existence philosophy and metaphysics paradigm must be the only meaningful debate is one of life.

Key words: Edith Stein, The Metaphysics of Life, Unity, Body Philosophy as a Singular Being, the Life Theory, Body Rehabilitation

투고(접수)일(2014년 11월 30일), 심사(수정)일(1차: 2014년 12월 8일, 2차: 12월 21일), 게재확정일(2014년 12월 28일)

^{*} SOGANG UNIVERSITY